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글로벌 실적 향상에 핵심 기여를 한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자 호실적 후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인피니언 등이 실적 향상, 다음주 실적 기대감으로 TSMC까지 실적 향상되면서 '기술하드웨어', '반도체'가 글로벌 실적 향상의 핵심 동력. 그 외 투자은행/자본시장(로빈후드 등) 및 산업복합/에너지장비(CE버노바 등)의 실적도 향상되며 'AI' 생태계의 실적 향상 지속. 또한 메타 주간 +15% - 2024년 초 이후 최고 주간 성과, 컨센서스는 다소 하향 (BofA, Buy 등급 유지하면서 "내부 메모 분석 결과 메타의 AI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리서치 발간) 금요일 +6% 단일 최대 급등. AI CAPEX ROI 불안에서 "비용 개선 확인"으로 내러티브 전환이 핵심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반도체(삼성전자 +4.23%, 인피니언 +2.18%,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1.87%, ASML +1.72%, AMD +1.64%, 도쿄일렉트론 +1.59%, KLA +1.52%, 마이크론 +1.24%, 인텔 +1.20%, SK하이닉스 +1.11%, 미디어텍 +1.11%, 마벨 +1.05%, 램리서치 +1.04%, TSMC +1.00%)

삼성전자 잠정실적(OP 89.4조원, YoY +1,810%) 발표 후 메모리 슈퍼사이클 컨센서스가 추가 향상,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1.87%)와 인피니언(+2.18%)이 장비·아날로그 중에서 두드러졌고, Q2 어닝 시즌에서 TSMC(7/16 발표 예정) 가이드언스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 공급망 향상을 견인

기술하드웨어(시게이트 +1.97%, 삼성전자 +4.23%, 델 +0.59%, 혼하이 +0.24%)

시게이트가 1주 +1.97%, 3달 +51.94%로 기술하드웨어 내 가장 가파른 향상. HDD 네어라인 수요 및 AI 콜드스토리지 슈퍼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잠정실적 서프라이즈가 전 업종 EPS 재추정을 촉발

자본시장(로빈후드 +2.57%, UBS +2.37%, 미쓰비시UFJ +2.87%, 찰스슈왈 +1.66%, 인터랙티브브로커스 +1.69%, 골드만삭스 +0.91%, 모건스탠리 +1.22%, 블랙록 +1.30%)

Q2 어닝시즌 개막(빅뱅크 7/14 발표)을 앞두고 IB·트레이딩·증권 수익 회복 기대감이 자본시장 전반의 EPS 향상을 견인. 특히 리테일 브로커리지(로빈후드 +2.57%)와 일본 대형금융(미쓰비시UFJ +2.87%, 미즈호 +2.27%)의 향상폭이 큼

산업복합/에너지장비(CE버노바 +1.04%, 지멘스에너지 +0.81%, 지멘스 +0.88%, 버티브 +0.61%, 슈나이더 +0.40%, ABB +0.36%)

CE버노바 3달 +36.07%, 1년 +141.86%로 구조적 향상 추세 지속. AI 데이터센터 전력 병목 → 가스터빈·전력망 현대화 수요가 드라이버. 버티브(+0.61%, 3달 +14.99%)도 데이터센터 열관리(냉각) 수요로 동반 향상

하향 업종은

제약(머크 -4.53%, 노보노디스크 -0.14%, 화이자 -0.17%, 버텍스 -0.69%, 노바티스 +0.22%)

머크(MRK)가 1주 -4.53%로 이번 주 하향 업종 내 단일 종목 최대 하락. 지난주 +1.43%에서 이번 주 -4.53%로의 급전환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MFN(최혜국) 약가 정책 강화 우려 +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경쟁 진입 압박이 복합적으로 반영. 노보노디스크(-0.14%)는 GLP-1 경쟁 심화(Eli Lilly 점유율 확대), 화이자(-0.17%)는 mRNA 사업 수익화 지연이 지속적 하향 원인. 단, 사노피(+1.14%)는 예외로 신약(아토피·면역학) 파이프라인 데이터 호재

원유/가스(코노코필립스 -3.93%, BP -3.39%, 토탈에너지 -1.82%, 캐나다내추럴 -1.70%, 셰브론 -1.04%, 사우디아람코 -0.24%, 쉘 -0.48%)

이란 휴전 재봉괴(7/8 트럼프 "휴전 끝") 이후 유가가 다시 \$73~78 구간으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기업 EPS 상향은 오히려 추가 하향. 시장이 "이란 재충돌 = 유가 단기 급등이지만 장기 수요 훼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배경. 코노코필립스 -3.93%는 전주 -0.43%에서 대폭 하향 가속. BP -3.39%는 구조조정 기대 소멸 이후 재반전. 단, 정제업체(마라톤페트로리엄 +3.02%, 필립스66 +2.26%)는 원유 가격 하락이 원가 절감으로 작용해 역방향 양(+) 유지 - 업종 내 E&P vs 정제 분화가 핵심.

금속/광물(애그니코이글마인스 -3.74%, 뉴몬트 -2.10%, 글렌코어 -2.10%, 리오티토 -1.51%, 캐나다내추럴 -1.70%, BHP +0.76%)

애그니코이글마인스가 1주 -3.74%, 1달 -4.93%, 3달 -5.76%로 전 기간 가장 강한 하향. 뉴몬트 -2.10%, 글렌코어 -2.10%로 금광주와 복합광물기업이 주도. 금값이 \$4,500+ 고점에서 이번 주 이란 재충돌 속에서도 \$4,113 수준으로 하락 유지 - 이란 리스크 프리미엄이 기존 예상보다 약해졌음을 의미. 단, 프리포트맥모란(1달 +3.80%)은 구리가 시 인프라 수요로 지지 유지 - 금(하향) vs. 구리(상향) 분화 지속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보잉, 길리어드사이언스, 삼성전자, 로빈후드, 패스트리테일링, UBS, 미즈호, 필립스66, 미쓰비시상사, 인피니언, 키엔스, 시게이트, TSMC, 마이크로론, AMD, ASML, 인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램리서치

하향 주요 종목은 머크, 코노코필립스, BP, S&P글로벌, 알리바바, 도쿄해상홀딩스, 뉴몬트, 글렌코어, 토탈에너지스, 캐나다내추럴, 리오티토, 셰브론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는 278조원 (1W +1.8%, 1M +6.9%, QoQ +22.1%). **2026E OP**는 971조원 (1W +1.5%, 1M +5.2%, YoY +223%). **2Q26F OP 상향 업종**은 증권, 정유, 화학, 해운, 전자재, 비철금속, 가전, 기술하드웨어. **하향 업종**은 기계, 철강, 자동차, 유틸리티, 상호미디어, 호텔레저, 방송엔터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2Q26F OP)는 SK스퀘어, 삼성전기, KB금융, SK, LG전자, 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LG화학, HMM 상향. 현대차, LG엔솔, 삼성생명, 한국전력,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벌비스, 한국항공우주 하향

2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포스코퓨처엠, SK, LG이노텍,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HMM, GS, LG화학,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 삼성증권, 고려아연, 신세계, KB금융, 대덕전자, LS, LG전자, SK스퀘어, 피에스케이, 한화오션,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HD건설기계, S-Oil, SK하이닉스, DB손해보험, 대우건설, 에이피알,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HD현대,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LS ELECTRIC, 삼양식품, 하이브, 두산밥캣, 신한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화, 리노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웨이, KT&G, 하나금융지주, 이수페타시스, LG, SK텔레콤, 에코프로비엠, 기아, 대한전선, 한화에어로페이스

외국인은 전반적 매도세 완화, 중소형주와 코스닥, 가치주 위주 매수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철강, 건설, 유통, 기술하드웨어, 통신.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가전, 호텔레저, 항공, 조선

연기금은 중형주와 고배당, 가치주 매수.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100억원, 코스닥 -23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항공, 유통, 필수재, 건강관리장비. **순매도 상위 업종**은 기술하드웨어, 화학, 방산, 전기장비, 상사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7.13일(월)

미국 6월 연방재정수지 (오전 2:00 ET) / Fastenal(FAST) 장 전

14일(화) ★★★ 금주 최대 이벤트 2가지 동시

미국 6월 CPI, 코어 CPI (오후 9:30 ET) - 컨센서스: 헤드라인 YoY +3.7%(5월 4.2%에서 대폭 둔화 기대, 유가 -20% 반영), 코어 MoM +0.26~0.30%. 헤드라인 3%대 진입 시 금리 인상 우려 완화 → 기술주 랠리 시그널, NFB 소기업 낙관지수 (오전 6:00 ET), 중국 6월 무역수지, 워시 의장 첫 의회 증언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 취임(5/22) 이후 첫 험프리-호킨스 증언. "9명의 인상 지지자" 발언 배경, 에너지 인플레이 재점화에 대한 입장이 핵심 / JPMorgan Chase(JPM), Goldman Sachs(GS), Citigroup(C), Wells Fargo(WFC), Bank of America(BAC) - 모두 장 전. Q2 IB 수수료, 트레이딩 수익, 사모대출 노출 현황 업데이트

15일(수)

미국 6월 PPI, 코어 PPI (오후 9:30 ET), Fed Beige Book (오전 3:00 ET), 중국 Q2 2026 GDP (오전 11:00 KST - 컨센서스 YoY +4.5%, QoQ +1.0%),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 / ASML(ASML) 장 전, Morgan Stanley(MS) 장 전, Johnson & Johnson(JNJ) 장 전, United Airlines(UAL) 장 전, BlackRock(BLK) 장 전

16일(목) ★★

미국 6월 소매판매 (오후 9:30 ET),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영국 5월 GDP / TSMC(TSM) 장 전 - Q2 2026 컨센서스 매출 \$263억(YoY +45%), AI 반도체 수요 재확인 여부가 반도체 섹터 방향성 결정, Netflix(NFLX) 장 마감 후 - 컨센서스 EPS \$0.79(YoY +10%), 매출 \$126억(YoY +14%), GE Aerospace(GEA) 장 전, UnitedHealth(UNH) 장 전, Abbott(ABT) 장 전

17일(금)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예비치 (오후 10:00 ET), 미국 6월 주택착공·건축허가, 미국 6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 / Travelers(TRV) 장 전

Quant Comment

지난 주말(금요일) 상위 28% 수준의 위험선호 관찰, VIX 지수 -5.1%, SOX 지수 +0.1%지만 지난주 +2.7%로 반등 성공, 달러인덱스 101 및 미국 10년물 금리 4.56%로 모두 소폭 상승

삼성전자 호실적 후 반도체 위주 글로벌 실적 상향폭 확대, 반도체를 대체할만한 실적 개선 섹터 전무한 상황

금주는 2분기 어닝시즌의 진짜 막이 오르는 주, 7/14 'CPI + 워시 첫 의회 증언 + 5대 빅뱅크 어닝'의 3중 이벤트 집중 — 최근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투자은행 실적 상향, 7/16 TSMC 실적 기대감도 반영될 것

결국 반도체 저점 확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 동시에 원/달러 환율 1500원 밑도는 만큼 금융주 및 호실적 저평가 내수주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